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도, 농지법 위반 의심 3명 적발

공직자·가족 등 토지거래 2차 감사결과 발표... 88개 사업 1km 범위 25만6478건 조사·전북경찰에 자료 제공

전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지난 4월에 이어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확정,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 시행했다. 특히, 시·군이 주관해 추진하는 도시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등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도와 공식·비공식으로 협의가 이뤄졌거나 예정인 모든 사업을 확인·제출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 조사하고, 증거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외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해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생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 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각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주 스님 열반... 이어지는 조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김제시 금산사를 찾아 열반한 월주(月珠)스님을 조문하고 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특히 올 봄 기습한파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어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상품이다. 복숭아농가 전체가 GAP인증을 받아 7월말 첫 수확을 하고, 무주권다들조 공업인에서 생산·선별·유통까지 품질을 관리했다.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거시기장터(jpiza.com)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제철제맛 팝업창을 클릭한 후 쿠폰을 발급받아 주문하면 시중가 2만5,000원의 무주 백도 복숭아 2.7kg을 50%할인된 1만2,100원대에 구매가능하다. 또 수확 후 익일 무료배송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본 쿠폰 활용에 더해, 지자체 온라인몰 최초 업무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카드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10% 추가 청구환인을 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

(사진=전북도체육회 제공)

### 도쿄올림픽 빛낼 전북 선수들

배드민턴 공희용·역도 유동주·체조 이준호 등 전북 출신·연고 선수 20명·임원 4명 출전

전북체육회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24명(선수 20명·임원 4명)이 전북 출신이거나 전북을 연고로 경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올림픽 효과 종목인 배드민턴에서 3명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공희용(전북은행)은 여자복식에, 서승재(삼성생명)는 개인복식과 혼합복식 경기를 치른다. 신승찬(인천공항)도 여자복식에 나선다. 한국 여자수영 2관왕인 김연경(전북체육회)과 전주시청의 문승우도 각각 자유형과 접영에서 메달을 노린다. 헤라클레스 역도의 유동주(진안군청)도 -90kg급에서 금메달을 들

어올린다는 각오이며, 3번째 올림픽 출전인 자전거 나야림(삼안사)도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다. 전북 체조 간판인 이준호(전북도청)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나서고

익산시청 소속 권영준은 펜싱 에페 경기에 출전한다. 또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복식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오연재(울산시청)를 비롯해 심종섭(한국전력)과 정혜정(군산시청)은 각각 마라톤과 조정 종목에 나선다. 아울러 축구 송범근과 이유현(전북현대), 정승원(대구FC), 배구의 이소영(인삼공사)과 오지영(KIXX), 야구의 차우찬(LG트윈스), 승마 김동진(전북체육회), 유도 이상호(마사회)도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다.

유인탁 사무차장은 "코로나와 폭염 등 현지 환경은 좋지 않지만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 체육의 매서움을 전 세계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 찾아 직원 격려·냉방용품 지급 의뢰 등 인력 보강 검사 대기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키로

전북도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과 여름철 폭염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폭염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온열질환 예방과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 30개소 선별진료소 현장을 방문해 냉방용품과 냉방용품 지급 등 격려와 지원에 나섰다. 또한 의료진과 검사자들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선별진료소 내에 에어컨·냉방기·선풍기 등을 설치했으며, 여러 차례 의료진·행정인력·지원봉사자를 위한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의료진과 행정인력을 보강해 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근무자의 휴게 시간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외부 대기줄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검체 채취 후 귀가 시 더운 열기를 식



전북도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 냉방용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혀줄 냉방용품도 제공하는 등 검사자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임시선별 진료소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역학조사 인력의 역량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방역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감염의 위험에 맞서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숨쉬고 격려를 이겨낼 수 있었고, 여러분을 믿고 현재도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하루 빨리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